김하성, 시즌 4호 홈런 '쾅'…소속팀 샌디에이고는 패배

LA다저스 우리아스 상대로 솔로 홈런 작렬…2-4 패배

시즌 타율 0.224→0.227(119타수 27안타)로 조금 올라

김하성(28·샌디에이고 파드리스)이 12일 만에 홈런을 때려냈다.

김하성은 14일(한국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의 다저스타디움에서 벌어진 2023 메이저리그(MLB) LA 다저스와의 경기에 7번 타자 겸 2루수로 선발 출전해 2회초 첫 타석에서 홈런을 쏘아올렸다.

샌디에이고가 1-3으로 뒤진 2회초 2사 주자 없는 상황에 타석에 들어선 김하성은 다저스 선발 훌리오 우리아스의 3구째 체인지업을 잡아당겨 왼쪽 담장을 넘어가는 솔로 홈런을 터뜨렸다.

시즌 4호 홈런이다. 김하성은 지난 2일 신시내티 레즈전 이후 12일 만에 손맛을 봤다. 김하성의 시즌 타점은 13개로 늘었다.

비거리는 129m, 타구 속도는 시속 108.5마일(약 174.6㎞)로 측정됐다.

전날 다저스전에서 7회 동점 2루타를 날린 김하성은 이틀 연속 장타를 뽑아냈다.

김하성은 이후 타석에서는 안타를 치지 못했다.

선두타자로 나선 5회초 좌익수 플라이로 물러난 김하성은 7회초 2사 주자 없는 상황에서는 헛스윙 삼진을 당했다. 우리아스와 8구까지 가는 승부를 벌인 김하성은 슬러브에 헛스윙을 해 삼진으로 돌아섰다.

3타수 1안타 1타점 1득점으로 경기를 마친 김하성의 시즌 타율은 0.224에서 0.227(119타수 27안타)로 조금 올라갔다.

김하성의 홈런에도 샌디에이고는 2-4로 패배해 4연패의 수렁에 빠졌다.

내셔널리그 서부지구 선두 다저스는 4연승을 질주했다. 다저스와 샌디에이고의 승차는 6경기로 벌어졌다.

1회말 J.D.마르티네스의 좌중월 3점포로 3-1 리드를 잡은 다저스는 3-2로 쫓긴 3회말 프레디 프리먼의 2루타와 윌 스미스의 적시타를 묶어 1점을 더했다.

이후 투수진이 호투하면서 다저스는 그대로 2점차 승리를 챙겼다.

다저스 선발 투수 훌리오 우리아스는 7이닝 3피안타(2홈런) 2실점하고 시즌 5승째(3패)를 수확했다.

뉴시스

'4차례' 오프사이드 좌절한 손흥민

'슈팅 0개'…평점 4~6점대 부여

토트넘, 아스톤빌라에 1-2 패배

결정적인 기회 때마다 오프사이드에 막힌 손흥민(토트넘)이 현지 매체로부터 저조한 평가를 받았다.

토트넘은 13일(한국시간) 영국 버밍엄의 빌라파크에서 열린 아스톤빌라와의 2022~2023 시즌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EPL) 36라운드 원정 경기에서 1-2로 졌다.

같은 시간 4위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맨유)가 울버햄튼을 2-0으로 꺾고 승점 66점이 되면서 6위 토트넘(승점 57)과의 승점 차가 9점으로 벌어졌다.

이로써 토트넘은 잔여 2경기를 모두 이겨도 4위에 오를 수 없게 됐다.

EPL은 4위까지 다음 시즌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UCL) 출전권이 주어진다.

또 6위까지 가능성이 있는 유로파리그 출전권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손흥민의 침묵이 뼈아팠다. 이날 측면 공격수로 선발 출전한 손흥민은 경기가 끝날 때까지 뛰며 상대 골문을 노렸지만, 기록상 슈팅은 '0개'였다.

득점 기회마다 때린 슈팅이 모두 오프사이드에 걸리면서 슈팅이 기록으로 집계되지 않았다.

유럽축구통계사이트 후스코어드닷컴에 따르면 손흥민은 이날 81.3%의 높은 패스 성공률과 활발한 움직임을 보였다.

하지만 무려 4차례나 오프사이드 반칙을 범하며 머리를 감쌌다.

후스코어드닷컴은 손흥민에게 평점 6점을 줬다. 또 다른 통계 매체 소파스코어는 6.3점을 부여했다. 이브닝 스탠다드는 "손흥민이 슈팅을 할 때마다 오프사이드에 걸렸다"며 평점 5점을 매겼다.

풋볼런던은 "전반에는 골키퍼를 제쳤지만 오프사이드 판정을 받았다"며 "아스톤빌라 수비 라인을 깨는 듯했지만 4차례나 오프사이드를 범했다. 수비를 통과할 방법을 찾지 못했다"고 평점 4점을 부여했다.

뉴시스

전남 유도 꿈나무, 제14회 청풍기 전국유도대회서 입상

순천신흥중 박예지·순천신흥초 김재홍, 각각 금메달·은메달 획득

순천신흥중 박예지(가운데)

순천신흥초 김재홍과 신흥초 유도부 단체사진

전남 유도 꿈나무가 제14회 청풍기 전국유도대회에서 입상하며, 우수한 성적을 거뒀다.

전남유도회(회장 임종안)에 따르면 지난 5일부터 9일까지 충북 청주, 청주대학교 석우문화체육관에서 열린 "제14회 청풍기 전국유도대회"에서 전남소속 유도 꿈나무가 금메달 1개, 은메달 1개를 획득했다고 밝혔다.

여자중학부에서 순천신흥중학교 박예지(3학년) 가 -52kg급 출전해 16강에서 조예은(옥천여중), 8강에서 이시은(경기체육중)을 꺾고 준결승에 진출했다.

준결승에서 부다영(성산중학교)에 손기술로 한판승을 따내 결승에 진출. 결승에서 조효진(광주체중)에 한판승을 거두며 여자중학부 -52kg 정상에 올랐다.

초등부에서도 순천신흥초 김재홍(6학년)이 은메달을 차지했다.

남자초등부 -36kg급에 출전한 김재홍은 32강에서 안수민(대전천동초), 16강에서 최시우(부안공명유도관), 8강에서 김동하(신정초)를 꺾고 준결승에 진출했다.

준결승에서 강민구(동남초)를 만나 접전 끝에 한판승을 거둬 결승에 진출, 결승에서 최원준(올림피안유도관)에 한판을 내주며 아쉽게 은메달을 차지했다.

임종안 회장은 "전국소년체전을 앞두고 치러진 전국대회에서 상위입상을 한 우리 전남 유도 꿈나무들이 매우 자랑스럽다"며 "전국소년체전에서도 이 같은 경기력을 펼쳐 메달 획득하길 바란다, 응원하겠다"고 말했다.

동부취재본부 김승호 기자

'제62회 전라남도체육대회' 완도군에서 개막

선수·임원단 등 7천여 명 참가…내일까지 24개 종목에서 실력 겨뤄

제62회 전라남도 체육대회가 5월 12일 완도공설운동장에서 개회식을 시작으로 4일간의 열전에 돌입했다.

'청정바다 완도에서 화합하는 전남체전'이라는 구호 아래 열리는 대회는 육상, 축구 등 24개 종목에 선수와 임원 등 7,200여 명이 참가한다.

대회 전날인 11일 오전에는 장도 청해진 유적지에서 채화식을 가졌으며, 12일 오후 5시 개회식이 진행됐다.

개회식은 22개 선수단 입장식을 시작으로 김영록 전남도지사, 신우철 완도군수, 송진호 전라남도체육회장 등 주요 내빈의 개회 선언, 환영사 등에 이어 '새로운 지평을 향해!'라는 주제로 한 공연과 성화 점화 퍼포먼스 등 다채로운 볼거리를 선보였다.

성화 봉송 최종 주자는 완도를 빛낸 4인의 체육인으로, 前 WBA 세계 챔피언 김봉준 선수를 시작으로 現 광주은행 역도부 고광구 감독, 現 완도군청 역도 실업팀 이양재 선수에 이어 2021년 PGA 챔피언스 투어 한국인 최초 우승, 대한민국 골프계의 산증인 최경주 선수가 최종 점화 주자로 메인 무대에서 골프 스윙으로 성화대의 불을 밝혔다.

신우철 완도군수는 환영사를 통 "설군 이래 우리 군에서 처음 열리는 대회가 대성공을 거둘 수 있도록 그동안 체육시설 확충 등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면서 "대회를 통해 완도가 스포츠 관광도시로 도약하고 해양치유 등 완도의 가치를 알려 위상을 드높일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덧붙여 "전라남도 체육대회는 도민의 마음과 역량을 한데 모으는 화합과 연대의 원동력이다"면서 "200만 도민에게 긍정의 에너지와 희망을 안겨줄 선수단의 건승을 기원한다"라고 말했다.

체육대회 종목별 경기 일정 등은 완도군 누리집(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완도=기동취재본부

임진희, KLPGA NH투자증권 챔피언십 정상

임진희(25)가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 NH투자증권 레이디스 챔피언십(총상금 8억원·우승상금 1억4400만원)에서 우승을 거머쥐었다.

임진희는 14일 경기 용인시 수원 컨트리클럽(파72)에서 열린 대회 최종 3라운드에서 버디 5개, 보기 1개를 쳐 8언더파 64타를 기록했다.

최종합계 15언더파 201타를 친 임진희는 통산 3번째 KLPGA 투어 우승을 차지했다. 1라운드부터 마지막 라운드까지 선두를 지켜 '와이어 투 와이어' 우승이다.

임진희는 박지영(27), 방신실(21), 이예원(20) 등 4명의 선수와 동타로 마지막 18홀을 치렀다. 임진희는 날카로운 샷으로 버디 찬스를 잡았고, 약 3m짜리 버디 퍼트를 침착하게 성공시켜 경쟁자들을 따돌렸다.

마지막 홀에서 아쉽게 파를 기록한 박지영은 최종합계 14언더파 202타로 2위에 이름을 올렸다. 박지영은 3라운드에서만 6타를 줄였지만, 역전 우승에 실패했다.

18홀에서 보기를 범한 방신실과 이예원은 13언더파 203타를 쳐 공동 3위에 머물렀다.

뉴시스

북한 역도, 2024 파리올림픽 예선전 참가할 듯

북한 역도가 2024 파리올림픽 예선전에 출전할 전망이다.

올림픽 관련 소식을 주로 전하는 인사이드더게임즈는 14일(한국시간) "3년 반 동안 국제대회에 나서지 않았던 북한이 파리올림픽 역도 예선전에 출전할 전망"이라고 보도했다.

북한은 코로나19 이후 좀처럼 국제대회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자국 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2021년 열린 2020 도쿄올림픽에도 출전하지 않은 북한은 국제올림픽위원회(IOC)로부터 징계를 받았다. IOC는 2021년 9월 도쿄올림픽에 무단으로 불참한 북한의 국가올림픽위원회(NOC) 자격을 2022년 말까지 정지했다.

IOC의 징계로 인해 북한은 이후 국제대회에 출전하지 못했다.

지난해 12월 31일을 끝으로 북한의 징계는 끝났다. NOC 자격을 되찾은 북한은 오는 9월 열리는 항저우 아시안게임과 내년 파리올림픽에 출전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인사이드더게임즈에 따르면 북한은 6월 9~19일 파리올림픽 예선전을 겸해 쿠바 아바나에서 열리는 국제역도연맹(IWF) 그랑프리에 선수단을 파견할 예정이다.